

# 范仲淹과 歐陽脩의 交遊 關係 研究\*

李承信\*\*

< 목 차 >

1. 序言
2. 北宋 江南文人들의 交遊 상황
3. 范仲淹과 歐陽脩의 思想的 交遊
  - (1) 政治的 交遊
  - (2) 學術的 交遊
  - (3) 文學的 交遊
4. 結語

## 1. 序言

北宋 시기 중국의 학술과 문학은 文治主義를 표방한 조정과 과거제도로 선 발된 文人들의 활약으로 크게 발전하였으며 후대에 큰 영향을 끼쳤다. 정치, 학술, 문학 등의 분야에서 이들 문인들은 그들의 사상적 교류를 통해 문단을 형성하고 교류하며 宋學의 기반을 다졌고 이후의 훌륭한 정치가, 사상가, 문학가들을 배출하였다. 그들은 과거 귀족세력의 억압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文才를 통해 정치와 학술, 문학 등에 공헌하였는데 비슷한 사상을 가진 부류끼리 문단을 형성하였다. 북송 시기의 고문운동과 정치 개혁 운동 역시 동일 계열의 문단에 속한 문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중심인물로 歐陽脩와 范仲淹, 胡瑗, 孫復, 石介, 尹洙, 劉敞, 王安石 등을 꼽을 수 있다.

\* 이 논문은 2009년도 BK21 고려대학교 중일언어문화교육연구단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BK21 高麗大學校 中日言語文化敎育研究團 研究敎授.

본고에서는 당시 문단 교유의 상황과 고문운동의 영수인 歐陽脩와 정치개혁의 핵심인 范仲淹과의 교유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핌으로써 학술과 문학의 사상적 연원 및 영향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 2. 北宋 江南文人들의 交遊 상황

북송은 오랜 전란과 혼란을 극복하고 통일된 국가를 건설하면서 통일된 체제의 정비와 전란의 수습에 주력하였는데, 당시 조정에서는 이러한 과정에서 과거제도를 통해 선발한 士人들을 대거 등용하였다. 이들 사이에서는 나라의 정황을 근심하고 우국의 충정을 발휘하려는 분위기가 팽배하였고, 이들은 각자의 文才를 발휘하며 政事를 돌보았다. 일개인은 기반세력이 매우 미약한데다 힘을 발휘할 수 없었으므로 정치적 의견이나 성향이 비슷한 士人들끼리의 기투합하였으며 자신들의 입장을 함께 토론하고 글로써 공유하였다. 자연스럽게 그들은 문단을 이루게 되었고 활동 역시 그 문단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당시 주로 '文'과 '道'를 논하였고 양자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에 있어 의견들이 분분하였다. 한편 문단을 중심으로 활동한 사대부 계층들은 교육을 중시하고 과거를 통해 인재를 등용하는 동시에 인재 배양의 제도를 정비하여 어려운 처지의 수재들을 조정에서 기용하였다.

北宋 중기 慶歷연간과 嘉祐연간에는 특히 인재 배출과 그들의 문인집단의 활약이 빛을 발하여 英宗과 神宗, 哲宗시대에 걸쳐 宋學이 일어났으며 范仲淹 등은 이에 사회적 역사적 공헌을 주도하였다. 그의 '慶歷新政'은 학문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고 당시의 교육, 인재등용, 새로운 제도의 시행 등의 주장과 함께 정치적 사회적 개혁을 도모하였다.

范仲淹은 憂國愛民에 대한 신념과 의지, 정치적군사적 풍부한 경험과 지혜, 박학한 학식을 소유한 자였기에 당시 송대 사인들의 칭송을 얻었고 그들을 휘

하에 두게 되었다. 그의 교유의 범위는 매우 광범하고 그 깊이 또한 상당히 親友, 同學, 동료는 물론이거니와 同鄉, 선후배 등에 이르기까지 그를 중심으로 교유활동이 이루어졌다.

范仲淹과 韓琦, 富弼, 歐陽修, 尹洙 등과의 교유의 정이 특히 두터웠으며 그들의 가치관과 지향하는 바, 도덕윤리관념과 이상추구가 기본적으로 일치하였다. 그러나, 국사를 논의할 때는 公私가 분명하여 상반된 견해를 보이기도 하였다. 당시 여러 문인들은 파를 나누어 이들을 좇았는데, 그 중 북송 정치와 문단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范仲淹과 歐陽修는 石介의 설을 추종하였다. 이들은 서로의 정치적 개혁과 문학적 개혁의 입장을 같이 하면서 동고동락하였다.

### 3. 范仲淹와 歐陽脩의 思想的 交遊

#### (1) 政治的 交遊

歐陽脩과 范仲淹의 교유에 관한 자료는 실제로 그리 많지는 않다. 상호 간에 써준 문장들을 통해서 그들의 교유시기를 짐작할 수 있는데, 景祐 元年 1034년경이 양자의 왕래 초창기라고 여겨진다. 歐陽脩가 范仲淹에게 쓴 서찰 <與范希文書>에서 헤어질 지 오래됨에 대한 회한을 적고 있다.<sup>1)</sup> 歐陽脩는 范仲淹이 睦州, 常州, 蘇州 등으로 옮겨 다니며 憂國憂民하고 天下에 大義를 품고 있음을 알고 그를 위로하였다.<sup>2)</sup> 그들은 함께 관직생활을 하면서 내왕하였는데, 역사적 사실로는 당시 諫官이었던 呂夷簡과 范仲淹의 갈등이 격화되면

1) 《歐陽脩全集·與范希文書》：“爲別久矣，所懷如何。”

2) 《歐陽脩全集·與范希文書》：“然竊惟希文登朝廷，與國論，每顧事是非，不顧自身安危，則雖有東南之樂，豈能爲有憂天下之心者哉？若夫登高以望遠，飲旨而食嘉，所以宣輔神明，亦君子起居寢食之宜也。”

서 정치적 투쟁이 일어난 시점을 즈음하여 양자의 정치적 입장을 살필 수 있다. 范仲淹이 <百官圖>를 써서 여이간이 인재를 등용함에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다시 <史論>을 써서 당시의 정치 폐단을 비판하였다. 이에 여이간이 대노하여 范仲淹이 직권을 남용하고 봉당을 이끌어 군신간의 관계를 이간질한다고 황제에게 상소를 올리자 곧 饒州로 폄적당했다. 당시 조정의 군신들이 모두 격분하였는데, 集賢校吏 余靖과 館閣校勘 尹洙 등이 연달아 폄적당했다. 이에 歐陽脩가 의분을 발휘하여 <與高司諫書>를 써서 范仲淹을 포함한 간관 고약놀을 비판하였다.

오늘날 그렇지 않고 우쭐대고 스스로 만족하여 전혀 부끄러움과 두려움 없이 그 현자를 헐뜯고 척출해야 한다고 여겨서 자기의不言의 과오를 감추려 합니다. 무릇 힘으로 감히 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미치지 못함이고, 피로 자기의 과오를 가림은 군자의 적입니다.……옛날 漢이 소망지와 왕장을 죽일 때 그 당시의 의론을 헤아려 반드시 현자를 죽임을 명확히 말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반드시 석현과 왕봉을 충신이라 하고 망지와 장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하여 죄를 입었습니다. 오늘날 죽하게서 석현, 왕봉을 보심에 충성스럽습니까? 망지와 장이 어질지 못습니까? 당시에도 간관이 있었는데 화를 두려워하여 간하려 하지 않았고, 반드시 징벌해야 한다고 하여 충분히 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죽하게서 보기에 과연 마땅히 징벌해야 합니까? 이것은 당시의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후세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죽하게서 지금 사람들을 속이려 하니 후세를 속일 수 없습니까? 하물며 지금 사람들을 속일 수 없습니다.<sup>3)</sup>

이 문장에서 歐陽脩는 范仲淹이 폄적당한 후에 歐陽脩가 그를 변론하고 당시 諫官이었던 高若訥을<sup>4)</sup> 혹독하게 비판하고 있다. 范仲淹이 <百官圖>를 올려

3) 《歐陽脩全集·與高司諫書》：“今乃不然，反昂然自得，了無愧畏，便毀其賢，以爲當黜，庶乎飾己不言之過。夫力所不敢爲，乃愚者之不逮，以智文其過，此君子之賊也。……昔漢殺蕭望之與王章，計其當時之議，必不肯明言殺賢者也，必以石顯，王鳳爲忠臣，望之與章爲不賢而被罪也。今足下視石顯，王鳳果忠邪，望之與章果不賢邪？當時亦有諫臣，必不肯自言畏禍而不諫，亦必曰當誅而不足諫也。今足下視之，果當誅邪？是直可欺當時之人，而不可欺後世也。今足下又欲欺今人，而不懼後世之不可欺邪？況今之人未可欺也。”

4) 《宋史·高若訥傳》：“高若訥字敏之，本井州榆次人，徙家衛州。進士及第，補彰德軍節度推官，改秘書省著作佐郎，再遷太常博士，知商河縣。縣有職分田，而牛與種皆假於民，若訥獨廢不耕。御史知雜楊偕遷爲監察御史裏行，遷尚書主客員外郎，殿中侍御史裏行。改左司諫，同管勾國子

인재등용의 폐단을 비판하자 재상 呂夷簡으로부터 미움을 사 폄적당했던 것이다.<sup>5)</sup> 당시 조정 신하들이 모두 안타까워하였는데, 左司簡 高若訥이 范仲淹을 포함하자<sup>6)</sup> 歐陽脩가 격분하여 이 글을 썼다. 이 때문에 歐陽脩도 夷簡으로 폄적당했다. 歐陽脩는 范仲淹의 억울함을 변호하면서 고약놀을 적나라하게 비판하였다. 간관의 임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무고한 자를 헐뜯는 상황을 통해 范仲淹의 결백함과 고약놀의 무도함을 대비적으로 표현함으로써 范仲淹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정치적 입장을 같이하며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일면을 충분히 살필 수 있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范仲淹이 康定 元年 西夏의 침입을 막는 데 온 힘을 기울이며 國事に 위급하게 대처하는 가운데 歐陽脩의 뛰어난 재능을 칭찬하며 천거하였으나, 范仲淹이 자신과의 관계가 깊지 않아 자신을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이후 慶曆 3년(1043)에 范仲淹이 경사에 돌아온 후에 歐陽脩가 范仲淹을 인종에게 천거하여 <十事疏>를 올리게 되었다. 歐陽脩는 范仲淹의 개혁의지에 동조하고 그를 적극 지원하였는데, 강력한 비난과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을 예견하고 황제가 적극 힘써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는 당시 정치적 경제적으로 新法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이므로 구파의 반대와 음모가 거세어져 그들의 정치노선이 동일함을 빌미로 삼아 당파를 짓는다는 모함을 받게 되었다. 인종이 점차 반대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歐陽脩는 <朋黨論>을 써서 자신들의 정당함을 주장하였다. 慶曆 4년(1044) 仁宗이 杜衍, 富弼, 韓琦,

范仲淹 등을 기용하여 개혁 정책을 펴 歐陽脩 등 간관들로부터 큰 지지를 얻었으나 수구 세력들이 반발하고 呂夷簡, 夏竦 등이 그들을 '朋黨'이라 모함한 것에 대해서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신은 소인에게는 봉당이 없고 군자만이 봉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유가 무엇일까요? 소인이 좋아하는 것은 봉록과 이득이며 탐하는 것은 재화입니다. 이득을 같이 할 때에 잠시 당을 이루어 끌고 벗이라고 여기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 이득을 보면 앞을 다투다가 혹 이득이 다하면 교류가 소원해진 즉 오히려 서로 적대시하고 해치니 그 형제와 친척이라도 서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은 생각건대 소인은 벗이 없고 그들이 잠시 벗으로 삼은 것은 거짓입니다. 군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키는 바는 도의이고 행하는 바는 충신이며 아끼는 바는 명예와 절개입니다. 그것으로써 몸을 닦은 즉 도를 같이하여 서로 보탬이 되고 그것으로써 나라를 섬긴 즉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구제하니 시종이 한결같습니다. 이것이 군자의 벗입니다. 그러므로 인군된 자는 다만 마땅히 소인의 거짓된 벗만을 물리쳐야 하며 군자의 진실한 벗을 쓰시면 천하가 다스려질 것입니다.<sup>7)</sup>

歐陽脩는 이 문장을 통해 范仲淹을 중심으로 한 혁신파에 대한 정치적 음해를 제거하고자 한 것이다.<sup>8)</sup> 이전에 왕우칭이 봉당에 관한 논의를 하며 군자에게 당이 있다고 하였는데,<sup>9)</sup> 范仲淹이 이에 의견을 같이하여 논의했으나 그의 변론이 자세하지 못하자<sup>10)</sup> 같은 날 歐陽脩가 이 글을 써서 인종을 설득하였

7) 《歐陽脩全集·朋黨論》：“然臣謂小人無朋，惟君子則有之，其故何哉？小人所好者祿利也，所食者財貨也。當其同利之時，暫相黨引以爲朋者，僞也。君子則不然，所守者道義，所行者忠信，所惜者名節。以之修身，則同道而相益，以之事國，則同心而共濟，終始如一，此君子之朋也。故爲人君者，但當退小人之僞朋，用君子之眞朋，則天下治矣。”

8) 《歐陽脩全集·重修實錄本傳》：“于是爲黨論者惡修謔語其情狀，至使內侍藍元震密上疏，言，范仲淹歐陽修尹洙余靖，前日蔡襄謂之四賢。斥去未幾，復還京師。四賢得時，遂引蔡襄以謂同列，以國家爵祿爲私惠，膠固朋黨，苟以報謝當時歌咏之德，今一人私党止作十數，合五六人門下黨與，已無慮五六十人，使此五六十人遞相提挈，不過三二年，布滿要路，則誤朝迷國，誰敢有言，挾恨報仇，何施不可。九重至深，萬機至重，何由察知！”

9) 《全宋文·王禹偁朋黨論》：“夫朋黨之來遠矣，自堯舜時有之。八元，八凱，君子之黨也，四凶族，小人之黨也。惟堯以德充化臻，使不害政，故兩存之。”

10) 《范仲淹全集·舉歐陽修充經略掌書記狀》：“臣訪于士大夫，皆言非歐陽修不可。文學才識爲衆所伏，往者緣臣之罪，有黷朝聽，蓋本人素好議論，聞于搢紳，只如臣爲諫官之初，杜衍任中丞之日，修皆曾移書責臣等緘默無執，非獨有高若訥之讓也。以此明之，實非朋黨。若訥知其無他，亦常追悔。”

監，遷起居士人，知諫院。時范仲淹坐言事奪職知睦州，余靖，尹洙論救仲淹，相繼貶斥，歐陽修乃移書責若訥曰，仲淹剛正，通古今，班行中無比。以非辜逐，君爲諫官不能辨，猶以面目見士大夫，出入朝廷，是不復知人間有羞恥事耶！今而後，決知足下非君子。若訥忿，以其書奏，貶修夷陵令。”  
5) 葉夢得，《石林燕語·卷九》：“范文正公始以獻《百官圖》譏切呂中，坐貶饒州。”  
6) 李燾，《續資治通鑑長編·卷一一八》：“仲淹言事無所避，大臣權倖多惡之。時呂夷簡執政，進者往往出其門。仲淹言，官人之法，人主當知其遲速昇降之序，其進退近臣，不宜全委宰相。又上《百官圖》，指其次第曰，如此爲序遷，如此爲不次，如此則公，如此則私，不可不察也。夷簡滋不悅。帝嘗以遷道事訪諸夷簡。夷簡曰，仲淹迂闊，務名無實。仲淹聞之，爲四論以獻。一曰帝王好尚，二曰選賢任能，三曰近名，四曰推委，大抵譏指時政。又言，漢成帝信張禹，不疑舅家，故終有王莽之亂。臣恐今日朝廷亦有張禹壞陛下家法，以大爲小，以易爲難，以未成爲已成，以急務爲閑務者，不可不早辨也。夷簡大怒，以仲淹語辨于帝前，且訴仲淹越職言事，薦引朋黨，離間君臣。仲淹亦交章對訴，辭愈切。由是降黜。侍御史韓瀆希夷簡意，請以仲淹朋黨榜朝堂，戒百官越職言事。從之。”

다. 문장을 써서 군자가 마땅히 당을 이루어 의를 펼쳐야 함을 말하여 경력신정을 계속 시행하는 결과를 얻어내었다.

실제로 歐陽脩의 문장 가운데에 范仲淹과 관련된 문장은 상당수 존재하며 특히 경력 연간에 쓴 奏議만도 다섯 편이 넘는다. 모두 국사를 논하면서도 사적인 개입이 없고 范仲淹의 충직함을 논하고 있어 歐陽脩가 范仲淹의 정치적 재능과 인격을 매우 존경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范仲淹의 사후에도 그를 위한 제문 등을 통하여 范仲淹의 충정과 인품을 칭송하였다. <資政殿學士戶部侍郎文正范公神道碑銘>을 살펴보자.

공이 장수가 되어 자중함을 지키는 데 힘쓰고 눈 앞의 천한 공을 세우거나 작은 이익에 탐하는 데 급해하지 않았다.……공이 장수와 관리들을 대할 때 반드시 법을 경외하고 자신을 사랑하도록 하고 하사받은 것은 모두 임금의 뜻으로 여러 장수들에게 하사하여 스스로에게 감사하도록 하였다. 여러 속국들이 그의 출입을 방입했지만 한 사람도 도망하는 자가 없었다.……그는 둔전병을 두어 내지로 와서 취직하게 하여 섬서 사람들이 수레로 양식을 나르는 노고를 덜어 주었다. 그 베푸는 바가 떠나고도 사람들이 그를 덕이 있다고 여긴 것이니, 그 법을 서로 지키며 감히 바꾸지 않는 것이 오히려 많다.<sup>11)</sup>

范仲淹은 사실 歐陽脩와 개인적으로 크게 친분이 두터웠던 인물은 아니었지만 정치적 개혁의 의지가 서로 들어맞았고 서로의 정치적 재능을 알아주었던 이들이다. 둘의 생활배경도 매우 흡사한 면이 있다. 歐陽脩와 范仲淹은 둘다 어려서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매우 빈곤한 처지에 역경을 딛고 학문을 열심히 하여 성공하였고 성공 후 어려운 여건의 백성들과 그들을 위한 정치를 도모하려는 개혁의 뜻을 함께 하였다. 물론 반대파의 저항과 폄적을 당하는 정치적 시련도 함께 겪었다. 특히, 歐陽脩는 范仲淹이 외세의 침입에 의해 고통받는 백성들의 삶을 살피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는 임기를

11) <歐陽脩全集·資政殿學士戶部侍郎文正范公神道碑銘>: “公爲將, 務持重, 不急近功小利. ……公待將吏, 必使畏法而愛己. 所得賜賚, 皆以上意, 分賜諸將, 使自爲謝. 諸蕃質子, 縱其出入, 無一人逃者. ……因徙屯兵就食內地, 而紓西人饋餉之勞, 其所設施, 去而人德之, 與守其法不敢變者, 至今尤多.”

변과 선견지명의 정치적 재능을 크게 인정하였다.

范仲淹과 歐陽脩의 정치적 개혁은 실제 제도의 개혁에 있었으며,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인재의 등용을 매우 중시하였다. 그들의 핵심 개혁 이론은 1036년 范仲淹이 제기한 ‘四論’을 통해 살필 수 있다.<sup>12)</sup> 그 중 ‘推委臣下論’에서<sup>13)</sup> 양자의 주장이 매우 비슷한데, 모두 인재 등용의 제도에 관한 부분이다. 인재를 등용할 때 독자적인 견해와 중론의 외면, 사사로운 감정의 개입 등을 반대하고<sup>14)</sup> 禮樂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유가관념을<sup>15)</sup> 추구하였다.

경력 5년(1045) 봄에 경력신정을 주도했던 杜衍, 范仲淹, 韓琦, 富弼 등이 계속 파면되었는데, 당시 歐陽脩는 河北都轉運使를 맡고 있었다. 그는 서를 올려 간언을 하여 이 네 사람에게 대한 동정과 지지를 표시하다가<sup>16)</sup> 수구 세력의 노여움을 사서 저주로 폄적되었다. 당시 그는 <豐樂亭記>를 써서 저주다가 오대 때에는 전쟁터였으나 이미 조정의 은혜를 입어 편안하고 풍족하여 백성들이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여기고 그 안에서 본인의 정치적 태도를 즐기는 심정을 담아내었다. <豐樂亭記>의 후반부를 살펴보자.

12) 李燾, <續資治通鑑長編卷一一八>: “帝嘗以遷道事訪諸夷簡. 夷簡曰, 仲淹迂闊, 務名無實. 仲淹聞之, 爲四論以獻. 一曰帝王好尚, 二曰選賢任能, 三曰近名, 四曰推委, 大抵譏指時政. 又言, 漢成帝信張禹, 不疑舅家, 故終有王莽之亂. 臣恐今日朝廷亦有張禹壞陛下家法, 以大爲小, 以易爲難, 以未成爲已成, 以急務爲閑務者, 不可不早辨也. 夷簡大怒, 以仲淹語辨于帝前, 且訴仲淹越職言事, 薦引朋黨, 離間君臣. 仲淹亦交章對訴, 辭愈切. 由是降黜. 侍御史韓瀆希夷簡意, 請以仲淹朋黨榜朝堂, 戒百官越職言事. 從之.”

13) 陳邦瞻, <宋史紀事本末·卷二十九>: “他日論建都之事, 仲淹進曰, 洛陽險固, 而汴爲四戰之地. 太平宜居汴, 卽有事必居洛陽. 當漸廣儲蓄, 繕宮室. 帝以問夷簡, 夷簡對曰, 仲淹迂闊, 務名無實. 仲淹聞之, 乃爲四論以獻. 一曰《帝王好尚》, 二曰《選賢任能》, 三曰《近名》, 四曰《推委》, 大抵譏切時弊.”

14) <歐陽脩全集·爲君難論上>: “以其違衆爲獨見之明, 以其拒諫爲不惑群論, 以其偏信爲輕發, 爲決於能斷. ……其令出而舉國之臣民從, 事行而舉國之臣民便.”

15) <歐陽脩全集·武成王廟問進士策>: “禮樂, 治民之具也.”

16) <歐陽脩全集·乞辨明藏之奇言事札子>: “臣先于慶曆中擢任諫官, 臣感徽仁宗恩遇, 不敢顧身, 力排奸邪, 不避仇怨, 舉朝之人側目切齒, 惡臣如仇. 適會臣有一妹夫張龜正前妻女, 嫁臣一疏族不同居侄晟, 于守官處與人犯奸. 是時錢明逸爲諫官, 遂言臣侵欺本人財物, 與之有私. 既蒙朝廷置獄窮勘, 并無實狀, 事得辨明, 而當時執政大臣, 惡臣者衆, 其陰私事雖已辨明, 猶用財物不明, 降臣知滁州.”

내가 이곳에 오니 그 땅이 편벽되고 일이 간단함을 즐기고 또 그 풍속이 편안하고 한가로움을 사랑하였다. 산과 계곡 사이에 이 샘물을 얻어 이에 날마다 저주 사람들과 더불어 우러르고 산을 바라보며 굽어보며 샘물 소리를 듣고 그윽한 향초를 따고 교목의 그늘 아래 앉으며 서리바람과 얼음눈이 내리면 각별히 맑고 빼어남을 드러냈다. 사계절의 경치가 사랑스럽지 않은 것이 없다. 또 요행히 그 백성이 해마다 물질의 풍부한 수확을 즐기고 나와 함께 노는 것을 기뻐한다. 그래서 그 산천을 근거로 해서 그 풍속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풍년의 즐거움에 편안해 할 수 있는 까닭이 다행히도 태평무사한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임을 알게 한다.

무릇 윗분의 은덕을 선양하고 백성과 더불어 함께 즐기는 것은 자사의 일이다. 마침내 글을 써서 그 정자에 이름을 붙인다.<sup>17)</sup>

여기에서 歐陽脩는 편안한 풍속을 치정의 최고로 간주하고 평온함과 풍요로운 물질을 중시하며 매우 현실적인 정치적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백성과 더불어 함께 즐기는 것은 관리의 직분을 다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그의 작품 <醉翁亭記>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윽고 석양이 산에 걸렸으니 사람의 그림자가 흩어져 어지러우니 태수가 돌아가고 빈객들이 따랐다. 수풀에 그들이 지고 새우는 소리가 오르내리는데, 놀러 온 사람들이 떠나니 새들이 즐거워한다. 그러나 새들은 산림의 즐거움은 알지만 사람의 즐거움은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태수를 따라 노닐어 즐거운 줄은 알지만 태수가 그들의 즐거움을 즐거워하는 것은 모른다. 취해서 그 즐거움을 함께 할 수 있고 깨어나서는 문장으로 쓸 수 있는 자는 태수이다. 태수는 누구인가? 여릉의 歐陽脩이다.<sup>18)</sup>

이는 范仲淹이 천하의 근심을 먼저 근심하고 천하의 즐거움은 나중에 즐거워하리라는 명구가 담긴 <岳陽樓記>를 쓴 것과 매우 흡사한 점이 많다. <岳

17) 《歐陽脩全集·豐樂亭記》：“修之來此，樂其地僻而事簡，又愛其俗之安閑。既得斯泉于山谷之間，乃日與滁人仰而望山，俯而聽泉，掇幽芳而蔭喬木，風霜冰雪，刻露清秀，四時之景，無不可愛。又幸其民樂其曠物之豐成，而喜與予游也。因為本其山川，道其風俗之美，使民知所以安此豐年之樂者，幸生無事之時也。夫宣上恩德，以與民共樂，刺史之事也，遂書以名其亭焉。”

18) 《歐陽脩全集·醉翁亭記》：“已而夕陽在山，人影散亂，太守歸而賓客從也。樹林陰翳，鳴聲上下，游人去而禽鳥樂也。然而禽鳥知山林之樂，而不知人之樂，人知從太守游而樂，而不知太守之樂其樂也。醉能同其樂，醒能述以文者，太守也。太守謂誰？廬陵歐陽修也。”

陽樓記>의 후반부를 살펴보자.

이 누각에 오르면 도성을 떠나 고향을 생각하며, 참소당한 것을 근심하며 비난을 두려워하며, 눈에 가득한 쓸쓸함에 감정이 극도로 격해져 슬퍼하는 자가 있다. 또한 봄날이 화창하고 맑은 날 물결이 놀라 일지 않고 위아래로 하늘빛이 온 물결에 한결같이 푸르다. 모래 가에는 갈매기가 날아 모이고, 비단 비늘 물고기들은 헤엄쳐 놀며, 강 언덕의 지초와 물가의 난초의 향기가 난무하고 푸릇푸릇하다. 그리고 어찌다 길게 자욱한 안개가 하늘을 메우고 하얀 달빛이 천리에 비친다. 떠있는 달빛은 금색으로 반짝이고 고요한 그림자는 구름에 잠긴 듯하다. 고기잡이 노랫가락에 서로 화답을 하니, 이 즐거움이 어찌 다함이 있겠는가?

이 누각에 오르면 마음이 넓어지고 정신이 편안해져 황제께 입은 총애와 모욕됨을 모두 잊어버리고, 술잔을 쥐고 바람을 맞으며 그 즐거움을 드날리는 자가 있다. 아, 내가 일찍이 옛날 어진 이들의 마음을 구했는데, 혹여 두 사람의 하는 것이 다르니 어찌서인가? 사물 때문에 기뻐하지 아니하며 자기 때문에 슬퍼하지 아니하며, 조정의 높은 자리에 거하면 그 백성들을 걱정하고, 강호의 먼 곳에 처하면 그 임금을 걱정하니, 이는 나아가도 또한 걱정하고 물러나도 또한 걱정하는 것이리라. 그렇다면 어느 때나 즐거운 것인가? 그 사람은 반드시 말할 것이니, '천하의 근심을 먼저 걱정하고, 천하의 즐거움을 뒤에 즐거워 할 것이니라.'라고 말이다. 아, 이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누구와 더불어 돌아갈꼬?<sup>19)</sup>

<岳陽樓記>에서 천하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충정이 있는 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范仲淹의 마지막 문장은 歐陽脩가 <醉翁亭記>의 마지막 구에서 백성들이 편안하게 즐기고 있음을 더욱 즐거워한 자는 바로 태수 歐陽脩 자신이라는 부분과 매우 흡사하다.

이처럼 范仲淹과 歐陽脩의 나라와 백성의 안위를 앞서 걱정하고 백성들의 즐거운 삶을 본인의 즐거움으로 삼는 정치 태도는 북송의 정치 개혁을 주도하는 두 거목의 밀접한 정치적 관계와 밀지않다.

19) 《范仲淹全集·岳陽樓記》：“登斯樓也，則有去國懷鄉，憂讒畏譏，滿目蕭然，感極而悲者矣。至若春和景明，波瀾不驚，上下天光，一碧萬頃，沙鷗翔集，錦鱗游泳，岸芷汀蘭，郁郁青青，而或長煙一空，皓月千里，浮光躍金，靜影沈璧，漁歌互答，此樂何極。登斯樓也，則有心曠神怡，寵辱俱忘，把酒臨風，其喜洋洋者矣。嗟夫！予嘗求古仁之心，或異二者之為，何哉？不以物喜，不以己悲，居廟堂之高，則憂其民，處江湖之遠，則憂其君，是進亦憂，退亦憂，然則何時而樂耶？其必曰先天下之憂而憂，後天下之樂而樂歟！噫！微斯人，吾誰與歸？”

(2) 學術的 交遊

北宋 初 宋學이 韓愈에서 연원하여 흥기한 데에는 '北宋五子'라 불리는 范仲淹, 歐陽脩, 王安石, 曾鞏, 張載 등이 큰 역할을 하였다. 그 중 특히 范仲淹을 따르는 무리들은 학술의 기풍을 선도하고 인재를 천거하여 선발하는 데 힘썼다. 范仲淹의 학술은 '宗經'을 그 특징으로 삼는데, 義理를 중시하여 송대 학자들과 함께 《周易》과 《春秋》를 특히 중시하여 연구하였다. 이러한 점은 歐陽脩도 마찬가지이다. 歐陽脩와 范仲淹은 모두 '宋初三先生'이라 불리는 胡瑗, 孫復, 石介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張載와 李覯 등을 천거하여 인재로 발탁하였다. 또한 시인 蘇舜欽과 林逋, 古文家 尹洙, 書法家 蘇舜元 등과도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교류하였다. 王安石과 曾鞏, 司馬光, 蘇軾 등도 적극적으로 그들을 지지하였으며 이들 모두는 함께 북송의 학술계를 주도하며 이끄는 역할을 했다.

范仲淹은 어려서 빈곤하였으나 힘써 학문에 정진하여 祥符 8년(1015) 진사에 급제하였고 천성 7년(1029)에 秘閣校理를 맡았다. 그는 조정에서 직언하는 데에 과감하였는데, 상소를 올려 劉太侯가 정치에서 물러날 것을 청하였으나 아무런 결과가 없자 스스로 외직을 청하였다. 그 해 2월 수렴청정을 하던 유태후가 병사하자 대신들의 옹호 하에 24세의 仁宗이 친정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정치개혁을 전면적으로 시행코자 范仲淹 등을 조정으로 불러들였다. 歐陽脩는 원래 范仲淹과는 교류가 없었는데, 范仲淹이 경사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간관의 중요성을 피력한 서신 <上范司諫書>를 보냈다. 송대에는 간관의 등급은 그리 높지 않았지만 規諫과 諷諭로써 황제에게 직접 진언을 할 수 있었다. 歐陽脩는 이 문장을 통해서 간관의 역할을 중시하고 조정의 개혁에 큰 역할을 담당할 范仲淹에게 은근한 기대를 나타내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서로 알게 되었고 이후 歐陽脩는 范仲淹을 좇아 적극적으로 조정의 개혁에 앞장섰다. 항상 조정의 모든 일에 范仲淹과 의견을 같이하여 개혁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歐陽脩에게 있어서 范仲淹은 당연히 가장 이상적인 儒家的 進

범이었을 것이다. 范仲淹 死後 그를 위해 쓴 신도비명에서 歐陽脩는 范仲淹의 유가적 덕목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애민사상을 기반으로 한 유가적 덕목을 크게 강조하였다.<sup>20)</sup> 范仲淹과 歐陽脩는 이에 기반하여 과거 제도에서 문장만을 중시하고 덕성을 경시하는 것은 본말이 도치된 것으로 보고 학교를 널리 세워 도덕과 교화에 힘써야 함을 강조하였다.

당시 仁宗이 신하들을 불러 국정을 논의하자 范仲淹 등이 '慶曆新政'을 추진하였는데, 그 중 學堂을 세우는 일이 중요한 안건이 되었고 歐陽脩가 이를 적극 찬성하였다.

학교가 폐해진 지 오래되어 학자들이 스승으로 삼을 바를 알지 못하고 또 공자 문인의 수제자라는 안회를 얻어 어울리며 선사로 삼았다. 수나라와 당나라 때에 천하의 주현이 모두 학교를 세우고 학관과 생원을 두어 석전의 예가 마침내 령으로 규정되었다. 그 후 주현의 학교가 폐해지고 석전의 예로 관리들이 규정된 령으로써 한 고로 폐해지지 않을 수 있었다. 학교가 폐해지고 따라 제사를 지낼 곳이 없는 즉 모두 묘에서 제사를 지냈다. ……곡성령 적율은 그 읍을 아직 벗어나지 않을 적에 문선왕묘를 수리하여 현의 왼쪽으로 바꾸고 그 바른 위치를 크게 하고 학문을 위하여 그 옆에 머물렀으며 구경의 책을 장서하고 그 읍의 자제들을 거느려 학문을 일으켰다. 연후에 제도를 살피고 제사의 준비물을 약간만 만들고 그 읍 사람들과 함께 일을 행하였다. 곡성현의 정치가 오래도록 피폐했지만 적율이 그곳에 거한지 한달만에 다스림이 능히 국전을 따르고 예를 닦고 학교를 일으켰다고 칭송되니 그 관리중 책하지 않은 자를 급히 하여 그에 미치지 못할까 걱정하니 뜻있는 선비라 할 수 있다.<sup>21)</sup>

20) 《四庫全書總目·文正集》：“仲淹人品事業卓絕一時，本不借文章以傳，而貫通經術，明達政體，凡所論著，一一皆有本之言，固非虛飾詞藻者所能，亦非高談心性者所及。蘇軾稱其天聖中所上執政萬言書，天下傳誦，考其平生所爲，無出此者。蓋行求無愧於聖賢，學求有濟於天下，古之所謂大儒者，有體有用，不過如此，初不必說太極，衍先天而後謂之能聞聖道，亦不必講封建，議井田而後謂之不愧王佐也。”

21) 《歐陽脩全集·穀城縣夫子墓記》：“學校廢久矣，學者莫知所師，又取孔子門人之高第曰顏回者而配焉，以爲先師。隋、唐之際，天下州縣皆立學，置學官，生員，而釋奠之禮遂以著令。其后州縣學廢，而釋奠之禮，吏以其著令，故得不廢。學廢矣，無所從祭，則皆廟而祭之。……穀城令狄君栗，爲其邑未逾時，修文宣王廟易於縣之左，大其正位，爲學舍於其旁，藏九經書，率其邑之子弟興於學。然后考制度，爲俎豆，籩簠，尊爵，簋簠凡若干，以與其邑人行事。穀城縣政久廢，狄君居之，期月稱治，又能載國典，修禮興學，急其有司所不責者，認認然惟恐不及，可謂有志之士矣。”

여기에서 무조건적인 옛 예의를 추송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예의를 취하고 공자의 유술을 높이 받들며 윗사람의 잘못을 풍자할 수 있어야 함을 말하였다. 즉 예의를 바로 세우고 학문을 일으켜서 정치를 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들은 모두 경학에 해박하여 易學을 연구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경학을 추송하였다. 范仲淹이 배우는 학인의 길에 대해 《易經》의 神明함, 《詩經》의 교화, 《春秋》의 포폄, 《禮》와 《樂》의 정신을 깨닫는 것이라고<sup>22)</sup> 말한 것처럼 歐陽脩도 이와 매우 유사한 관점을 말하고 있다. 《易》은 일상의 이치를 알려주는 것이며, 《春秋》는 선악시비를 기록한 것이며, 《詩》는 정치와 교화의 흥쇠를 말하고, 《書》는 요순삼대의 치란을 말하며, 《禮》와 《樂》은 나라를 다스리고 자신을 수양하는 법을 말한 것이라 했다.<sup>23)</sup> 歐陽脩와 范仲淹은 동일한 정치노선과 문학사상 하에 정치와 학술, 문학활동 등을 함께 실천하고, 모두 六經에서 文, 道, 用을 구하였다. 또한 擬古의 학풍과 義理의 학문을 선도하며 유학의 명교사상과 도덕본체론을 핵심으로 한 철학적 논증과 理學의 기초를 다잡았다. 특히 《易》에 관한 견해에 있어 范仲淹은 三才天人合一의 宇宙觀으로 이해하고 자연과 인간의 화해를 체현하고 만물이 근본으로 돌아간다고 하였다. 즉 우주본체론으로서 《易》을 통해서 일체를 인식하고 관찰하며 나아가 해석해야한다고 보았다.

《역》은 가르침이 되며 四維에 달한다. 그 象을 보아 나누어 구분짓고 그 道를 생각하여 변통한다. 위로는 모든 왕들의 위업을 통솔하고 아래로는 만물의 의심되는 바를 단절시킨다. ……지극하다! 구석짐도 없고 통함도 없으며 오로지 변함에 나아간다. 천지를 구비하고 일월을 담아내며 풍상을 쌓고 산과 연못을 나열한다. 북을 두드리고 춤을 추며 온 정신을 다 쏟으면 三才를 다스려 《역》이 이루어진다.<sup>24)</sup>

22) 《范仲淹全集·南京書院題名記》：“通《易》之神明，得《詩》之風化，洞《春秋》褒貶之法，達《禮》、《樂》制作之情。”

23) 《歐陽脩全集·答李詡第二書》

24) 《范仲淹全集·易兼三才賦》：“《易》之爲教也，達乎四維。觀其象則區以別矣，思其道則變而通之。上以統百王之業，下以斷萬物之疑。……至矣哉！無幽不通，惟變所適。準天地而容日月，畜風雷而列山澤。鼓之舞之以盡神，統三才而成《易》。”

이는 유가의 천인합일의 논리를 한 단계 발전시킨 것으로 歐陽脩의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 <送王陶序>를 살펴보자.

육경은 모두 성인의 도를 신고 있는데 《역》은 성인의 쓰임을 드러내고 길흉, 득실, 동정, 진퇴는 《역》의 일이다. 거기에서 쓰임이 되는 것은 강함과 부드러움이고 기건곤순은 강유의 큰 쓰임이다. 팔괘의 변화와 육효의 교차에 이르러서는 강과 유가 그 위치에 번갈아 거하고 길과 형과 무구와 흉과 려와 회와 린의 상이 생겨난다. 대개 강은 양이 되고 덕이 되며 군자가 되고 유는 음이 되고 험이 되고 소인이 된다. ……대저 군자가 그 강을 씬에 있어서는 점진적으로 하면서 그 때를 잃지 않으며 또 홀로 말지 않으며 반드시 정과 예와 열과 화로써 그것을 이룬 즉 공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이 군자가 움직여 나아가 용사하는 방법이다.<sup>25)</sup>

歐陽脩는 易象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만물의 이치가 《易》에 담겨있음을 강조하고 매우 논리적으로 그것을 해설하였다. 范仲淹과 歐陽脩의 《易》에 대한 관점과 해석은 매우 유사하며 이러한 학술적 태도는 그 외 《詩》와 《書》 등에서도 거의 근접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경학에 대한 태도에서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范仲淹은 儒學, 佛學, 道學 등 학문적 경계가 歐陽脩 보다 훨씬 광범위하여 儒學만을 오로지 연구한 歐陽脩와는 또 다른 차이를 보인다. 특히 한유를 추종하며 佛學을 극심하게 반대한 歐陽脩와 달리 范仲淹은 유학은 물론 불학과 도학에 대해서도 종교 이상의 학술의의와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 이에 宋初三先生과 활발

25) 六經皆載聖人之道，而《易》著聖人之用。吉凶，得失，動靜，進退，《易》之事也。其所以爲之用者，剛與柔也。氣健坤順，剛柔之大用也。至旋八卦之變，六爻之錯，剛與柔迭居其位，而吉，亨，利，無咎，凶，厲，悔吝之象生焉。蓋剛爲陽，爲德，爲君子，柔爲陰，爲險，爲小人。自乾之初九爲，而上至於剝，其卦五，皆陰剝陽之卦也，小人之道長，君子靜以退之時也。自坤之初六爲復，而上至於夬，其卦五，皆剛決柔之卦也，小人之道消，君子動以進而用事之時也。夫剛之爲德，君子之常用也，庇民利物，功莫大焉。其爲卦，過泰之三而四爲大壯，五爲夬，壯者，壯也；夬者，決也。四陽雖盛而猶有二陰，然陽衆而陰寡，則可用壯以攻之，故其卦爲壯。五陽而一陰，陰不足爲，直可決之而已，故其卦爲夬。然則君子之用其剛也，審其力，視其時，知陰險小人之必可去，然後以壯而決之。夫勇者可犯也，強者可誅也，聖人於壯，決之用，必有戒焉。故大壯之彖辭曰，大壯利貞。其象辭曰，君子非禮弗履。夬之彖辭曰，健而說，決而和。其象辭曰，居德則忌。以明夫剛之不可獨任也。故復始而亨，臨浸而長，泰交而大壯，以衆攻其寡，夫乘其衰而決之。夫君子之用其剛也，有漸而不失其時，又不獨任，必以正，以禮，以說，以和而濟之，則功可成，此君子動以進而用事之方也。

한 교류를 하였고 실제로 당시의 도학가 石介와 매우 긴밀한 교류를 하기도 하였다. 사실 歐陽脩 역시 원칙적으로는 유학만을 고수하지만 석계를 위한 문장에서 그의 인품과 재주를 극찬할 만큼 학문 영역에서는 매우 포용력 있는 태도를 취하였다. 다음을 살펴보자.

그가 일을 만나 발분하여 문장을 지으셨는데 고금의 치란과 성패를 다 열거하시어 당세의 현명하고 어리석음과 선과 악을 지적하여 풍자하셨다.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 하는데, 꺼리거나 피함이 없었다. 세속에서는 자못 그 언사에 놀랐다. 이로 말미암아 비방이 그치지 않고 소인배들이 더욱 그를 질시하고 미워하여 서로 힘을 써서 기필코 죽음으로 밀어내었다. 선생이 태연하여 미혹되지도 않고 변색하지도 않으며 말하였다. “나의 도가 진실로 이와 같다. 나의 용기가 맹분을 능가한다!”<sup>26)</sup>

石介(1005-1045)의 字는 守道 혹은 公操로 세상에서는 ‘徂徠先生’이라 불렀다. 그는 작자와 같은 해에 진사가 되어 天聖 8년(1030) 서로 왕래하는 친한 친구가 되었다. 그 후 둘의 정치적 포부와 이상은 일치하였으나 고문을 회복하려는 입장은 난삽과 평이로 나뉘어 서로 달랐다. 석계는 孫復, 胡瑗이 학문을 강설한 것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정치에 투신하였다. 慶曆 3년 杜衍,<sup>27)</sup> 范仲淹 등이 집정한 초기에 그는 <聖歷聖德詩>를 지어 대신들을 포폄하고 邪正을 분별하여 보수 세력과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歐陽脩는 이러한 석계가 道學家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과감하고 회피하지 않는 정신을 칭찬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가 지나치리만큼 스스로를 고아하다 여기는 것에 대해 경계하기도 하였다.<sup>28)</sup> 그가 훌륭한 스승임을 강조하고 곧은 절개와 정확하고 분명한

26) 《歐陽脩全集·徂徠先生墓誌銘》：“其遇事發憤，作為文章，極陳古今治亂成敗，以指切當世賢愚善惡，是是非非，無所諱忌。世俗頗駭其言，繇是謗議喧然，而小人尤嫉惡之，相與出力必擠之死。先生安然不惑不變日，吾道固如是，吾勇過孟賁矣。”

27) 《歐陽脩全集·乞罷武臣帶軍職疏》：“公當景祐中，爲御史中丞時，余以鎮南軍掌書記爲館閣校勘，始登公門，遂見知獎。後十五年，余以尚書禮部郎中，龍圖閣學士留守南都，公已罷相，致仕于家者數年矣。余歲時率僚屬候問起居，見公福壽康寧，言笑不倦。歲餘，予遭內艱去，居于穎。服除，來京師，蒙恩召入翰林爲學士，與公書問往還無虛月。又二歲，公以疾薨于家。”  
《宋史·杜衍傳》：“杜衍字世昌越州山陰人。父遂良仕，至尚書度支員外郎。衍總髮苦志厲操，尤篤於學，擢進士甲科，補揚州觀察推官，改秘書省著作佐郎，知平遙縣。”

사리 판단, 그리고 효심 등을 제재로 표현하였다.

이와같이 范仲淹과 歐陽脩는 송초의 학문의 대가들과 함께 교류하며 자신의 학술적 성과를 이루어나갔으며, 그 과정에서 매우 광범위한 학문적 영역을 고수한 것으로 보인다.

### (3) 文學的 交遊

范仲淹과 歐陽脩는 정치적, 학문적, 문학적 교류를 통해 동일한 사상과 개혁의 의지를 지니고 있었으나, 문학적 측면에 있어서는 范仲淹은 주목받지 못하고 그의 작품에 대한 충분한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에 반하여 주지하다시피 歐陽脩는 대문호로서 중국 문학사상 큰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 사실 范仲淹 역시 송대 시문혁신운동의 창도자로서 清新한 詩文의 풍격을 지니고 있으며 자연스러운 문풍을 이룬 훌륭한 작품들을 썼다. 당시 시문혁신운동의 영수인 歐陽脩는 물론 尹洙, 石延年, 蘇舜欽 등의 인물들과도 문단을 형성하여 위로는 柳開와 王禹偁, 穆修 등을 계승하고 아래로는 王安石과 曾鞏, 三蘇 등을 계도하였다. 范仲淹은 당대 한유와 유종원의 고문을 추종하고 당시 시문혁신가인 歐陽脩 등의 문단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칭송하였다. 따라서 서곤체 문장을 반대하고 문장이 내용과 형식을 겸비할 것을 주장하며 駢文과 散文을 혼용하여 완전한 아름다움을 지닌 문장을 쓸 것을 추구하였다. 또한 문학과 사회 교화의 관계가 매우 밀접함을 인식하고 文道合一을 주장하는 등 歐陽脩와 매우 흡사한 문학주장을 펼쳤다.<sup>29)</sup> 그 구체적 실례로 范仲淹의 <岳陽樓記>는

28) 《宋史·石介傳》：“會徐狂人孔直溫謀反，搜其家得介書，夏竦銜介甚，且欲中傷杜衍等，因言介詐死，北走契丹，請發棺以驗。詔下京東訪其存亡。衍時在兗州，以驗介事語官屬，衆不敢答，掌書記龔鼎臣愿以闔族保介必死，衍探懷出奏稿示之，曰，老夫已保介矣，君年少，見義必爲，豈可量哉！提點刑獄呂居簡亦曰，發棺空，介果北走，孥戮非酷。不然，是國家無故剖人家墓，何以示後世？且介死必有親族門生會葬及棺斂之人，苟召問無異，即令具軍令狀保之，亦足應詔。于是衆數百保介已死，乃免斫棺。”

29) 《范仲淹全集·奏上時務書》：“文弊則救之以質，質弊則救之以文。質弊而不救，則晦而不彰；文弊而不救，則華而將落。前代之季，不能自救，以至于大亂；乃有來者，起而救之。故文章之薄，

文質을 겸비한 駢文과 散文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고문을 쓸 것을 주장하였으나 문장의 형식적인 아름다움까지 추구하였으므로 駢文의 장점을 활용한 것이다.<sup>30)</sup> 이는 歐陽脩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의 저작 <醉翁亭記>나 <秋聲賦> 등은 거듭된 수정을 거쳐 매우 아름다운 형식미를 지니는 동시에 서정적이고 풍부한 사상 내용을 내포하고 있어 후인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 두 문장가는 서로 완정한 내적 외적 美를 추구하는 문학관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문장을 살펴보자.

자고로 치세는 적고 난세는 많은데 지금이 다행히 치세인데 문장은 혹 순수하질 못하고 혹은 더디게 오로도록 그에 미치지 못하니 그 어려움이 어찌 이와 같을 것인가? 진실로 그런 사람이 있고 또 다행히 치세에 나왔으니 세상에서 가히 그것을 귀중히 하고 아끼지 않겠는가? 오오 나의 자미가 한 번의 술자리에서의 잘못으로 평민으로 폐해져 전전하다 죽었다. 이는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며 당시의 인인군자의 직위에 있는 자로 나라의 현재를 육성해야 하는 자들이 안타까워하였다.

자미의 나이가 나보다 적었지만 내가 고문을 배운 것은 오히려 그의 뒤에 있다. 천성 연간에 내가 관리 진사 시험에 응시하였는데 당시에 학자들이 언어의 성우적 열에 힘써 그것을 시문이라 부르며 서로 자랑하고 숭상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자미만이 그 형 재홍과 목참군 백장과 더불어 옛 노래와 시에 문을 섞어 당시 사람들이 자못 모두 그를 비웃어 비난하였지만 자미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 후 천자가 시문의 폐단을 걱정하여 조서를 내려 학자들이 옛 것에 가까이 하도록 권면하니 이로 말미암아 그 풍조가 점점 그치고 학자들이 조금씩 옛 것으로 나아갔다. 다만 자미가 온 세상이 모두 행하지 않을 때 하여 시종일관 스스로 지켜 세속의 추이에 얽매이지 않으니 가히 우뚝 선 선비라 할만하다.<sup>31)</sup>

則爲君子之憂；風化其壤，則爲來者之資。惟聖帝明王，文質相救，在乎己，不在乎人。”

30) 註 19 參照.

31) 《歐陽脩全集·蘇氏文集序》：自古治時少而亂時多，幸時治矣，文章或不能純粹，或遲久而不相及，何其難之若是歟？豈非難得其人歟？苟一有其人，又幸而及出于治世，世其可不爲之貴重而愛惜之歟？嗟吾子美，以一酒食之過，至廢爲民而流落以死，此其可以歎息流涕，而爲當世仁人君子之職位宜與國家樂育賢材者惜也。

子美之齒少於予，而予學古文反在其后。天聖之間，予舉進士于有司，見時學者務以言語聲偶適裂，號爲時文，以相誇尚。而子美獨與其兄才翁及穆參軍伯長，作爲古歌詩雜文，時人頗共非笑之，而子美不顧也。其后天子患時文之弊，下詔書諷勉學者以近古，由是其風漸息，而學者稍趨於古焉。獨子美爲於舉世不爲之時，其始終自守，不牽世俗趨舍，可謂特立之士也。”

이 문장은 歐陽脩의 <蘇氏文集序>로 그의 亡友 蘇舜欽 死後 4년 뒤 仁宗 皇祐 3년(1051) 그의 문집을 10권으로 만들고 거기에 서문을 쓴 글이다. 소순흠은 송대 시문 혁신 운동 선구자의 일인으로 歐陽脩보다 앞서 고문을 썼다. 정치적으로는 피폐한 정치를 개혁할 것을 주장했으며 范仲淹, 杜衍, 韓琦, 富弼 등의 경력 혁신과의 입장에 섰다. 당초 范仲淹이 그의 재주를 추천하여 불리 시험을 보도록 하여 集賢校理 監進奏院이 되었다. 그 후 재상 杜衍의 딸을 처로 맞아 들였고 范仲淹 부필 등과 함께 경력 변법을 시행하였으나 결국 보수파에 의해 파면되어 조정에서 쫓겨났다. 이후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나중에 다시 등용되고 소순흠은 경력 8년(1048) 湖州長史로 복귀되었으나 그 해 12월생을 마쳤다.<sup>32)</sup> 范仲淹과 歐陽脩가 추천하고 아끼던 文才인 소순흠에 대한 평가 역시 古文運動 추진과 더불어 일치한다.

또한 고문을 주장하고 사료문을 반대하였는데, 范仲淹이 歐陽脩를 천거한 데 대해 歐陽脩가 사절한 일이 있는 후로는 더욱 강경해졌다. 仁宗 康定 元年(1040) 范仲淹이 龍圖閣直學士로 陝西經略安撫副使를 맡아 西夏를 공격했을 때 歐陽脩를 經略府掌書記로 위임하자 歐陽脩가 사절하였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모친을 봉양해야 하므로 거리가 멀어 장서기를 사절한다고 하였지만 실은 范仲淹이 천거한 직책이 사료문을 쓰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어서 극구 사양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歐陽脩가 과거에 급제하여 모친을 봉양하기 위해서 부득불 사료문을 썼지만 그 후에는 결코 사료문을 쓰지 않았고 앞으로도 결코 쓰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sup>33)</sup> 당시 范仲淹이 歐陽脩를 經略府掌書記로 천거하며 그의 문학적 재능을 직접적으로 매우 높게 평가한 대목을 살펴보자.

32) 《宋史·蘇舜欽傳》：“范仲淹荐其才，召試，爲集賢校理，監進奏院。舜欽娶宰相杜衍女，衍時與仲淹，富弼在政府，多引用一時聞人，欲更張庶事。”

33) 《歐陽脩全集·答陝西安撫使范龍圖辭辟命書》：“不幸修無所能，徒以少喜文字，過爲世俗見許，此豈足以當大君子之舉哉！若夫參決軍謀，經畫財利，料敵制勝，在于幕府苟不乏人，則軍書奏記，一末事耳，有不待修而堪者矣。由此始敢以親爲辭，況今世人所謂四六者，非修所好？少爲進士時不免作之，自及第，遂棄不復作。在西京佐三相幕府，于職當作，亦不爲作，此師魯所見。”

신이 사대부들을 방문하였는데, 모두가 歐陽脩가 아니면 안된다 하였습니다. 문학에 재주가 많고 식견이 탁월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에 탄복합니다.<sup>34)</sup>

范仲淹은 歐陽脩의 재능이 해당 직책에 매우 충분함을 설명하고 과거에 봉당을 지은 죄로 모함당한 일을 해명하고 사사로운 감정 때문이 아니라 歐陽脩의 문학적 재능이 매우 뛰어나 인정받고 있음을 강조하여 간곡한 어조로 그를 친거하였다.<sup>35)</sup> 范仲淹이 歐陽脩의 文才를 인정한 부분과 함께 이 문장 자체의 간명함과 호소력, 표현법 등은 문학적 가치로도 살펴봐야 할 부분일 것이다.

范仲淹과 歐陽脩는 文과 道의 관계에 대한 견해도 매우 흡사하다. 范仲淹은 ‘文辭貫道’를 주장하며 자신의 문학이론과 창작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문학은 권계삼을만 하여야 하고 교화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하며 ‘文以載道’를 주장하였다. 그는 인품과 도덕, 학문, 문장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六經을 따르고 聖人의 뜻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문사가 도를 관통하여야 하고 문학과 학술은 도를 담기 위한 도구로서 인식하였다.<sup>36)</sup> 歐陽脩 역시 문장은 道를 담고 있어야 하며 文道 일치를 주장하여 宋學의 기풍을 반영하는 문학관을 소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양자는 각기 ‘格深而意遠’과 ‘文深而意遠’의 문학 창작 태도를 제시하였으며 문장의 다양한 체재의 내용과 형식을 발전시켜 송대 문학운동을 주도하였다. 소위 奏疏, 祭文, 書序, 送序, 墓誌銘, 雜記, 書信, 文賦 등의 각종 문장 체재를 발전시키고 체재에 부합하는 사상 감정을 최대한 발휘하는 등 송대 문장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유학과 육경의 전적들을 근간으로 교화와 인의의 문학적 내용을 담고 道를 전하는 문학의 기능적인 요소를 격조있고 敦厚한 풍격으로 승화시키는 동시에 실질적인 문학작품 활동과 풍부한 문학 이론들을 주장하였다.

34) 《范仲淹全集·舉歐陽脩充經略掌書記狀》：“臣訪於士大夫，皆言非歐陽脩不可。文學才識，爲衆所伏。”

35) 《范仲淹全集·舉歐陽脩充經略掌書記狀》：“往者緣臣之罪，有黷朝聽，蓋本人素好議論，聞于振紳。只如臣爲諫官之初，杜衍任中丞之日，修皆曾移書責臣等緘默無執，非獨有高若訥之讓也。以此明之，實非朋黨。”

36) 《范仲淹全集·南京書院題名記》：“講義乎經，詠思乎文。經以明道，若太陽之御六合焉；文以通理，若四時之妙萬物焉。誠以日之，義以日精。聚學爲海，則九河我吞，百谷我尊；淬詞爲鋒，則浮雲我決，良玉我切。”

## 4. 結語

본고에서는 范仲淹과 歐陽脩의 교유관계를 중심으로 그들의 정치적, 학술적, 문학적 사상 맥락을 살펴보았다. 양자는 동시대의 정치와 학술, 문학의 거장으로 북송의 개혁을 주도하며 사상적 교유를 매우 활발히 진행하였고 이에 양자 간의 매우 유사한 견해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范仲淹과 歐陽脩는 愛國憂民과 인재 등용, 현실 개혁 등을 추진하며 정치 개혁의 길을 함께 걸은 동지로서, 儒家에 바탕을 둔 ‘宗經’과 교육의 중요성을 제창하며 宋學의 기틀을 다진 학문의 동료로서, 時文을 반대하고 古文運動을 선도한 문학의 동반자로서 깊이 교류하였다. 아울러 北宋 시기를 주도하며 여타의 다른 정치가, 학술가, 문학가 등과도 다양하고 폭넓은 교유를 통해 사상의 경계를 확대하고 이는 후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이후에 논의를 더 전개하여 ‘宋初三先生’으로 불리는 孫復, 胡瑗, 石介와 張載, 李覯, 후대의 王安石, 曾鞏 등과의 교유 관계를 확대하여 고찰한다면, 그들이 공유한 사상 세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宋學을 연구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 < 參考文獻 >

王壽南·陳水逢 主編, 《范仲淹의 修養與作風》, 臺灣商務印書館印行, 1977.

陳邦瞻, 《宋史紀事本末》, 遼寧古籍出版社, 1994.

紀昀·陸錫熊 編, 《四庫全書總目》, 中華書局, 1997.

《宋史》, 中華書局, 1997.

高海夫 主編, 《唐宋八大家文鈔校注集評》, 三秦出版社, 2000.

歐陽修, 《歐陽修全集》, 中華書局, 2001.

曲延慶·孫才順, 《先憂後樂范仲淹》, 齊魯書社, 2002.

葉夢得, 《石林燕語》, 三秦出版社, 2004.

李 燾, 《續資治通鑑長編》, 中華書局, 2004.

《全宋文》, 上海辭書, 2006.

劉琳·李勇先·王蓉貴·校點, 《范仲淹全集》, 四川大學出版社, 2007.

胡永杰, 《范仲淹樓上一嘆動天年》, 中國發展出版社, 2008.

### < 中文提要 >

本稿研究范仲淹與歐陽脩之交遊關係, 把握了兩者之間的政治、學術、文學思想之異同。范仲淹與歐陽脩是同代政治、學術、文學方面的領導者, 共同主導北宋改革運動。爲主文人集團的思想交遊更活潑, 廣大影響了文人集團與政治家、學術家、文學家各個人, 兩者互相影響得很深刻。

范仲淹與歐陽脩以偕行人同推進愛國憂民、薦舉人才、改革現實, 以政治的同志同提倡了宗經與‘重視教育’, 以尊立宋學基盤的同僚司反對時文, 以文學同僚領導古文運動。兩者在同一文人集團里面互相交遊, 互相影響了, 所以他們的思想很類似, 而兩者很大影響了北宋文學家、學術家與政治家。

關鍵詞: 范仲淹、歐陽脩、交遊關係、政治、學術、文學、思想的交遊、北宋改革運動、文人集團、政治家、學術家、文學家、影響、愛國憂民、薦舉人才、改革現實、同志、偕行人、反對時文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09.8.29	2009.9.17	2009.10.8	2009.10.12	2009.10.30